

해외리그 활동 중 기성용은 어떻게 농지를 구입했을까

광주 민간공원 인근 수십억 대 농지 매입·부동산 투기 의혹

2016년 7월 광주 서구는 1필지 등 46억원 상당 사들여 '12억 매입' 기성용씨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입건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여부·무단 형질 변경 등 수사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32)선수와 아버지인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기씨 부자가 산 땅 일부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마북공원 조성사업 터에 포함된 점을 감안, 부동산 투기 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구 선수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 선수가 해외리그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농지매입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기씨 부자가 사들인 땅을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

로 불법 전용하고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기 선수는 지난 2009년~2020년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팀 등 해외 프로축구 구단에서 활동하고 있어 실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음에도 2016년 7월~11월 광주시 서구 금호동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2351평)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했고, 앞서 2015년 7월과 11월 같은 지역 잡종지 4개 필지 4661㎡(1409평)를 18억 915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 선수의 아버지인 기 전 단장과 같은 해 7월 기 선수의 땅 인근 논 2개 필지 3008㎡(909평)를 12억 9015만원에 매입했다. 이같은 농지 취득은 현행법상 투기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특히 계획서에는 실제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및 방안, 해당 종지의 이용실태 등을 작성해 시·구·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 선수는 농업경영계획서 발급 당시 해외에서 활동중이었던 때문에, 경찰은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경찰은 기씨 부자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발표된 2016년 11월 직전에 땅을 샀고 일부 땅(2653㎡)이 마북공원 사업 터에 포함돼 매입가격 5억6500만원보다 두배 이상 높은 12억여원을 보상을 받은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씨 부자가 산 땅의 일부가 농지의 형

질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확인돼 광주시 서구가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서구는 지난 13일 형질에 맞지 않게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확인해 기씨 부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후 다음달 말까지 농지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서구는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 전 단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발표 전 땅에 대해서도 구매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기씨 부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조율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꽃보다 아름다운 '독서하는 그대' '세계 책의 날'을 하루 앞둔 22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책나눔행사서 직원들이 책을 대여 하러온 주민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 제정해야”

이은경 동신대 교수 주장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언어 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공교육 제도권이나 병원이나 전문 재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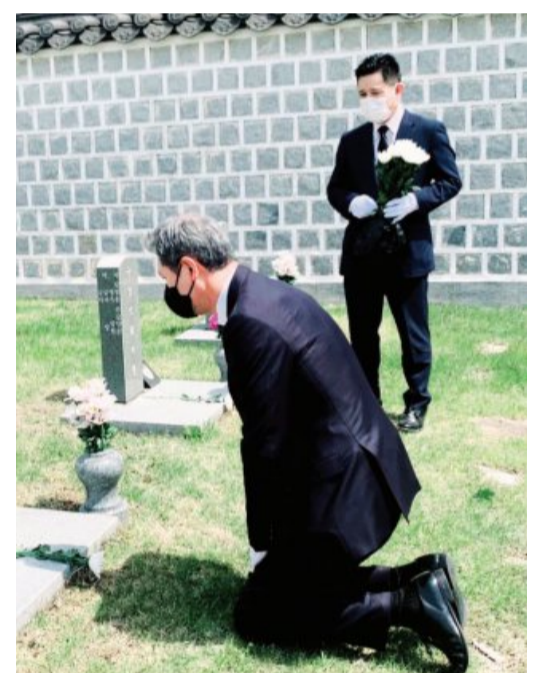
이 같은 현실에서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이은경 교수가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경 교수는 최근 관련 학계 교수와 국회의원, 교사,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언어재활사를 의무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요구가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의사소통 능력과 읽기 및 쓰기 능력이 서툰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10% 정도이며,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교육 선진국들은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고, 학생들의 학업과 사회 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이은경 교수는 “난독증과 학습지연 등은 물론 학교폭력 문제도 넓은 범위에서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소통기술 부족에서 발생한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까지 심각한 만큼 학교언어재활사 의무 배치가 절실한 현명이다”고 주장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노태우 장남 재현씨 5·18민주묘지 세번째 방문

“사죄 약속 지키기 위해...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54)씨가 국립5·18민주묘지를 3년째 방문했다. (사진) 22일 국립5·18민주묘지에 따르면 노재현씨는 지난 2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노씨는 지난 2019년부터 매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있다. 노씨는 이날 방문록에 '5·18 영령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며 광주의 정신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라고 적었다. 노씨는 이날 전재수·김영영씨의 묘와 행방불명자 묘역의 김병균씨의 묘를 찾아 참배했다. 노재현씨 측은 “매년 방문해 사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5·18을 앞두고 조용히 들렀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와 같이 노 전 대통령 이름으로 헌화했고 짧은 일정을 마치고 올라왔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기상청 단기예보 3시간→1시간마다 제공

앞으로 언제 비가 내리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를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22일 그동안 3일 간의 날씨를 예보했던 단기예보를 기존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상세하게 예보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기예보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등 3시간마다 제공했다면 오는 27일부터는 오전 9시, 오전 10시, 오전 11시 등 1시간마다 제공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강수량 예보 역시 1시간 단위의 정량적인 값으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보다 짧은 시간 정확한 강수량을 알 수 있어 출퇴근 등 특정 시간에 비가 오는지

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영농활동 등 야외작업을 준비할 때는 누적 강수량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호우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강수강도(시간당 강수량)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전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는 위험도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0mm 이상~50mm 미만'과 '50mm 이상' 등 정량값보다는 범위 단위로 예보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